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세션 16,

사무엘상 29-31장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상 29-31장 16회입니다. 29장과 30장은 얽힌 거미줄에서 탈출하는 부분이고, 3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을 보겠습니다. 29장과 30장은 함께 나옵니다. 정말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초점은 David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나는 사무엘상 29장과 30장, 얽힌 거미줄에서 탈출하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 사울과 그의 군대 사이를 오가는 것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7장에서는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도망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가드 왕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자처합니다. 이 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장 2절에서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사울에게로 옮겨집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엔돌의 영매에게 갑니다. 그녀는 사무엘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무엘은 사울이 살아 있을 때 사울에게 했던 말을 단순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고 이제 왕이 보좌에서 폐위될 날이 이르렀나이다. 29장에서는 초점이 다시 다윗에게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8장 2절에서 우리가 남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29장의 시작 부분에 연대순 플래시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28장 4절에 따르면, 사울이 엔돌에서 영매를 방문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음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1장 1절에 따르면,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업을 시작하는 29장 1절에서, 블레셋 군대는 여전히 아벡에 있는데, 그곳은 약 40절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넴 남서쪽 마일. 그러므로 29장의 사건은 사울이 엔돌을 방문하기 전에 일어났음이 틀림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9장에서 일어날 다윗의 블레셋 군대 추방에 대한 보고를 사울이 엔돌을 방문한 기사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서술자는 이야기 줄거리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가서 아마도 전투에서 사울과 맞서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실제로 전투에서 직접 맞붙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 일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대적하여 손을 들지 않으려고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 그가 어떻게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배치는 극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질문을 갖게 되는 곳입니다. 29장에서 일어날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곳에 모였다는 언급은 매우 불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과 하에서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서 목격된 유일한 때는 이스라엘이 비극적으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 직전인 사무엘상 4-1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다가 죽었고, 거절당한 제사장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었습니다. 31장에 설명될 다가오는 전투에서 거절당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유사점이 있으며 이 부분, 특히 31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내 생각에 저자는 왕조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 거절당한 왕인 사울이 전장에서 죽은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왕조를 가질 수 있었으나 그것을 상실한 엘리도 죽었던 이전 사건과 유사하게,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예고하고 작가의 마음 속에서 주제별로 연결되는 서술적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군대를 모으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로 행진하고 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가드 사람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행진하고 있더라.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모이고, 가드 출신 아기스와 그의 군대도 함께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들은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진심으로 믿는 아기스는 29장 3절에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나와 함께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글썄, 데이비드의 속임수는 잘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기 백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는 일로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쉬는 속았습니다.

블레셋 사령관들은 다윗에 대해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기스에게 노하여 그 사람을 돌려보내어 주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 중에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공격하여 공황과 혼란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부하들의 머리를 빼앗는 것보다 그가 주인의 총애를 다시 얻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그곳에 있는 사울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침투하여 전투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다윗이 아닌가? 5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노래를 아주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다윗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속임수와 책략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섭리가 필요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실 것은 아키스 외에 블레셋 사령관들에게 익숙해질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이 숨이 막힐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침공했고, 사울이 가서 그 땅을 지키고 쫓아오는 다윗을 물리쳐야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키쉬는 다윗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은 믿음직한 자니 당신이 나와 함께 군대에서 복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당신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나 통치자들은 당신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블레셋 통치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데이비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는 실제로 항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로 모릅니다. 성경의 내러티브에는 공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사기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David는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멋지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는 떠나기를 너무 열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블레셋 통치자들의 회의적인 태도가 확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항의를 하고 싶어합니다.

아마도 그는 블레셋 통치자들이 의심하는 바로 그 일을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8절은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가 물었다. 내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주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울 수 없나이까? 그리고 물론 에이키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다윗의 주, 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기만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나는 내 주이자 왕인 사울의 적들, 즉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갈 수 없습니까? 다윗의 말은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속임수 모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세 번이나 내 주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장들에서 그를 내 주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David는 여기서 약간의 단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통치자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아키쉬에게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좋은 방법이다.

데이비드가 항의하고 있어요. 그는 끝까지 계락을 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 눈에 기쁨을 주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그에게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당신과 함께 가고, 아침이 밝자마자 떠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통해 다윗의 의도에 대해 매우 옳았을 블레셋 통치자들의 회의론을 사용하여 다윗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David의 사과와 David의 변호 측면에서 저자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가짜 뉴스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는 다윗이 실제로 블레셋 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기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던 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반역자이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벤자민파 가짜뉴스.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아니, 아니, 그것이 진행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Achish를 속였습니다.

그는 아기스 휘하에서 복무하면서도 우리의 대적인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아말렉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적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곧 그가 수넴에 오르기 전에, 블레셋 군대가 싸우려고 그곳으로 올라오기 전에, 그는 아벡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알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장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네게브와 시글락을 습격했다는 것을 알고,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곳을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이들.

그러므로 그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30장 3절에 따르면 그들은 그 도시가 불에 타서 그들의 아내와 아들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곳에 오면 당신의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가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자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주변에는 한 무리의 무법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매우 씩씩했고 그들은 데이비드를 비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비난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글썄, 통치자를 비난하자.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향했고, 주님께서는 그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이 매우 괴로워서 그의 부하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아달에게로 가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생존자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좋은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내가 이 악탈대를 추격해야 합니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그들을 추월하고 구조에 성공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모두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울이 왜 엔돌의 영매에게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꿈으로, 우림 과 둠뭉 으로 ,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이야기 전반에 걸쳐 데이빗과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변호할 때 다윗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말씀조차 하지 않으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선택된 왕은 누구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가짜뉴스를 믿지 마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브솔 골짜기에 이르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뒤에 남았더라.

그 중 200명은 너무 지쳐서 계곡을 건너지 못했으나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종의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쳐서 이 아말렉 사람들과 맞서더라도 전력을 다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긴 여행이었고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이집트인 한 명을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줍니다. 그들은 그에게 무화과와 건포도를 줍니다. 그는 일종의 부활했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쳤어요. 다윗이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왔니? 그리고 그는 내가 이집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말렉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저는 3일 전에 병이 났고 그들은 저를 그냥 버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내 주인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남방 그렛 사람 의 땅과 유다에 속한 일부 지역과 갈렙의 남방 지역을 습격 하고 시글락을 불태웠느니라.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습격대에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여,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내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에게서 많은 양의 노략물을 탈취하였으므로 그곳 들판에 흠어져 먹고 마시고 흥청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싸웠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청년 400명 외에는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아말렉 군대는 다윗의 군대보다 더 컸습니다. 현재 다윗에게는 남자가 400명밖에 없습니다. 400명 빼고 다 죽여버립니다.

내 말은, 내가 받은 인상은 그 400명이 소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놀라게 하여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간 두 아내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노소나 소년이나 소녀나 노략질한 것이나 빼앗은 모든 것을 다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모든 양 떼와 소 떼를 취하니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서 몰고 이르되 이는 다윗의 탈취물이라 하고 그들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200명의 남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악한 사람들과 말썽꾸러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빼앗은 것을 그들과 나누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아내와 자녀를 다시 가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신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니었어.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관대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내 말은, 이 사람들이 지친 이유는 그들이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약 70마일, 55마일을 여행한 다음, 와디 브솔까지 15마일을 더 여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보로 길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부 사람들은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David는 여기에 개입하여 그의 부하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두가 자신의 몫을 얻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으니 곧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율례와 율례로 삼았으니 곧 짐을 지키는 자나 뒤에 머물러 있는 자까지 다 승리의 탈취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편애를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 중 얼마를 자기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와 대적에게서 전리품 중에서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마도 이 시점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사무엘상 29장 30절, 얽힌 거미줄 탈출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종들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고 다윗이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은 그분의 섭리로 그들을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30장이 끝날 때쯤이면 그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태도와 그의 부하들의 태도 사이의 대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싶다면, 그분이 택하신 종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태로운 위치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안전을 위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데이빗은 집에만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다시 Saul로 이동합니다. 전날 밤, 그는 무덤에서 돌아온 사무엘의 영과 대결했고, 사무엘은 이전에 사울에게 말했던 것을 단순히 반복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당신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그 점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너는 전쟁에서 죽고 네 아들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많은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이름도 있는데,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입니다. 사울 주위에서 싸움이 치열해졌고, 궁수들이 그를 따라잡아 사울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화살 한두 개를 뽑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그의 충실한 무기병에게 칼을 빼어 나를 꿰뚫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할레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찢어서 모욕할 것입니다. 사울은 고문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갑옷 소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나 그의 무기를 든 자는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갑옷을 입은 자도 마찬가지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병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이야기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비멜렉은 대량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에서 그가 공격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칠 때 성벽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맷돌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던져 그를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여 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도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는 갑옷 소지자가 그렇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갑옷 소지자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처럼 사울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비슷하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전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비멜렉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역시 대량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놈의 제사장들을 죽여 전멸시켰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아비멜렉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사울과 그의 기억과 명성에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야기 속의 나쁜 사람이고, 계정 초반에 죽은 다른 나쁜 사람처럼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성읍들을 빼앗고 점령합니다. 다음날인 318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은 죽은자를 벗겨냅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쓰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들은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온 땅에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굴욕을 당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무서운 날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모든 용사들이 밤새도록 벳산으로 행군하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에서 내려 놓고 야베스로 가서 불살랐더라 그들을. 그리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애도와 결합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겠습니까? 글썄요, 여러분은 사울의 전성기였던 사무엘상 11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위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오른쪽 눈을 찔리면 그들과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나하스는 누군가가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자기 군대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베냐민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우리가 그 옛날 베냐민 남자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장소들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행진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나하스와 그의 군대를 매복시켰고, 야베스 길르앗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는 암몬 족속의 압제자인 나하스에게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존경하고 싶어하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서 사울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구출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사울의 죽음의 여파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David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David는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 특히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사무엘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상 29-31장 16회입니다. 29장과 30장은 얽힌 거미줄에서 탈출하는 부분이고, 3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입니다.